

저희 스미스채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multiply)하는 꿈이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오늘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 **예배당 복원을 위한 기도:** 예배당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복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 묵상집>과 <책자>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큰 기쁨과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속회 모임 안내: 목요일 저녁 7 시 (Zoom)**

*예배위원 –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	성찬위원
1/18 박진철	양성심	이신천	강호	강주은
1/25 채영원	강호	강주혜	강호	김연미
2/1		광야 예배 in DC		
2/8 김종문	김호연	박미자	강호	박진철
2/15		특별 강사 초대 연합예배		
2/22 양성심	이신천	채영원	박진철	강주은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11321 Beach Mill Road, Great Falls, VA 22066. 571-434-9680
www.SmithChapelGMC.org/in-Great-Falls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그레이트폴스 캠퍼스
한국어 예배

2026년 1월 18일

오후 1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5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40:1-11

박진철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찬송 Hymn

88. 내 진정 사모하는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대표기도 Prayer

성경 봉독 Scripture 누가복음 11:9-13 양성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Sermon

나는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가?

강호

말씀 노트:

묵상 및 적용 질문

- 최근 내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내 일상의 습관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 이번 한 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실제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 나눔 Reflection Sha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성찬식 Holy Communion

성찬위원: 강주은

파송 찬송 Sending off Hymn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축도 Benediction

한주도 주님 안에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롬살롬!